제3회
아이코리아 유아교사
창작동화 공모전 원고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공모전 원고 작성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제목: 조심하세요!

번호	원고내용
장면 1	“나 잡아봐라.” “야! 이리 와!” 놀이터는 즐거운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해요. 저기 좀 보세요. 놀이터 한쪽 구석에는 거미가 집을 만들고 있네요. 신이 나서 뛰어놀던 도윤이는 거미를 보지 못했나 봐요. 팔을 휘두르다 그만 거미줄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장면 2	“어, 거미줄이 있었네.” 끊어진 거미줄에 거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도윤이가 말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귀엽네. 어디 한번 간지럼을 태워볼까?” 도윤이는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거미를 간지럼 태웠어요. 거미가 긴 다리를 버둥거렸어요. “히히, 재미있다.”
장면 3	다음날이 되었어요. 도윤이는 오늘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어요. 거미도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지요. 도윤이는 살금살금 거미에게 다가갔어요. “물총 발사!” 도윤이는 거미를 향해 물총을 쐈어요. “야호, 거미줄 과녁이다. 반짝이 과녁!” 거미줄에 물방울이 묻어 반짝이자 도윤이는 더 신이 나 물총을 쐈지요. 거미줄이 끊어지자 거미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장면 4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고 온 도윤이는 피곤했어요. “아함…. 졸려.” 그런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제3회 아이코리아 유아교사 창작동화 공모전 참고자료_『아이코리아 인성동화 큰 책_조심하세요!』 동화 내용

본 자료는 공모전 원고 작성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장면 5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끄럼틀, 그네, 시소가 다 엄청나게 크네요. “어, 여기는 어디지? 꼭 거인이 사는 나라 같아.” 도윤이는 의아해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으악! 조심해.”
장면 6	하늘 위에서 거미가 뚝 떨어졌어요. “아이, 깜짝이야! 무슨 일이니?” “아니…. 저기 꼬마들이 내가 열심히 만든 집을 또 망가뜨려.” “뭐라고?” “내가 지은 집을 자꾸 망가뜨려서 정말 힘들어.” 거미의 이야기를 듣고 도윤이는 거미집을 망가뜨렸던 것이 생각나 미안했어요. “내가 집 만드는 걸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장면 7	도윤이는 거미가 집을 만드는 것을 도와줬어요. “거미야, 거미집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렇지? 그래도 집이 있어야 쉴 수 있고 먹이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집이 꼭 있어야 해.” 그때 갑자기 ‘와!’하는 큰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앗, 물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 거미집은 아이들이 쏜 물총에 맞아 망가졌고 도윤이와 거미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와, 거미집이 망가졌다. 히히히!”
장면 8	“그만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내 방, 내 침대 모두 그대로였어요. “후유, 정말 다행이야.” 도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인가를 종이에 적었어요.
장면 9	도윤이는 종이를 가지고 놀이터로 향했어요. 오늘도 거미는 열심히 집을 만들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거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거미야,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혔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 거미에게 사과한 도윤이는 집에서 가져온 종이를 거미집 옆에 붙였어요. ‘거미가 집을 만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